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책자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도군의회의 허궁희 의장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의 해입니다. 지방자치 발전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용성 대구 수성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방자치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성과로 1987년 개정 헌법의 공포일인 10월 29일을 지방자치의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부활 30년의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의 완전한 실현이라고 할 것 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민주정부 수립, 평화로운 정권 교체에 더 긴 시간, 더 많은 희생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과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이 주민 편의 행정, 봉사 행정으로 바뀌고,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는 지방자치 시행의 핵심이고, 지방의회의 감시로 각종 부조리

는 과거 유산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주민자치회, 참여예산 등 행정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의 장이 펼쳐지고, 식 실시, 보편적 복지 혁명, 기본소득 등 획기적 정책 변화도 지방의회가 없었다면 소모적 갈등이 계속됐을 것입니다.

지방자치 30년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였고, 지방의회는 ‘플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임이 입증되었고, 국가 경쟁이 아닌 도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지방 자치는 우리 생활의 일부인 동시에 국정 운영의 기본 원리입니다.

30년 지방자치 다음은 지방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은 국가 발전의 새 동력으로 코로나19 대처에서 지방정부가 보여 줬듯이 자율성과 책임성이 담보되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지방정부·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은 지방자치의 완성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지방분권은 주민 참여를 전제로 하기에 지방의회는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고, 중앙은 유능하고 효율적이며, 지방은 무능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을 불식되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중앙이 아닌 지방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주민의 참여에 의한 지방분권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수성구의의회와 완도군의의회의 역사.

감사합니다.

2021. 04. 29

완도군의의회 의장 허 궁 희